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교회의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5

2020
vol. 237

춘천성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사진은 여름 미국 재부흥 운동 /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미동부(뉴욕, 워싱턴, 보스턴, 캐나다) 목회자 실행위원 연합축도〉

주여 이땅과 도시를 위하여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미국과 세계는 인류역사에 본격적으로 지난 10년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성경과 반대되는 극한 인본주의를 시작할 때 지난 8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미국 재부흥 운동'을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에서 전개해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긍휼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속히 이 시간이 끝나고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역대하 7:13-15)

김성호 목사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미국 재부흥운동 대표/ 뉴욕, 미동부 성시화 운동 본부대표)

CONTENTS

- 3 _ 성시화
- 4-5 _ 기본 만남
- 6-7 _ 선교 순복음춘천교회
- 8-9 _ 특집 - 춘천기독교 120주년사
발간 연내 추진
- 10 _ 특집 - 부활의 의미
- 11-13 _ 기관·교계소식
- 14-15 _ 알림·후원
- 16-17 _ 우리들 이야기
- 18-19 _ 건강 이야기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위원 최상도,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이관형, 정숙현, 손윤권
편집·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T033-256-1260 F033-257-1260 E-mail : holycc1972@daum.net

2020 홀리클럽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1996년 6월8일 초대 회장 조남진 장로님 중심으로 일반 평신도들로 창립된 춘천홀리클럽이 올해로 24주년을 맞습니다

평신도 선교단체로 춘천성시화와 다음세대 육성과 지역사회 섬김을 목표로 103회 정기기도회를 하였으며, 2012년부터 매년 춘천에 기독교동아리 모범중고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 및 치과진료, 이발, 사진촬영 등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동내면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구청소년 교도소)에 겨울 성경학교에 간식제공등 기도회에 동참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7시에 주향교회에서 열리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도 홀리클럽 회원이 대표기도를 하며 동참하고 있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석사교 하천광장에서 열리는 통일광장기도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며 선진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해 6월25일은 철원 노동당사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구국통일대성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이 정상화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석광훈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홀리클럽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교회를 선정하여 4월 2일(목)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카페 꿈순이

최재훈 목사(꿈꾸는순복음교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충만하여 천국에 이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꿈꾸는순복음교회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후평1동에서 카페 꿈순이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꿈순이는 꿈꾸는순복음교회의 약자이자 교회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복음도 커피에 실어서 전해 보는 건 어떨까? 더불어 커피에 예수의 문화와 향기를 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사명의식으로 꿈순이는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으로 뛰어드셨던 예수의 모습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작은 실천이라는 소망도 담았습니다.

꿈순이는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화요일 저녁에 콘서트 예배를 열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찬양사역자와 악기 세션맨을 모셔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 내의 아마추어 공연자와 찬양사역자들에게 공간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로잡힌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찾아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최재훈 담임목사는 바리스타의 사명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든 오셔서 커피 향 가득한 카페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꿈을 Take Out 하세요.



만남

조선커피를 아시나요
박대웅 집사

1. 조선커피의 감사

2012년 11월 추수감사주일, 조선커피는 춘천 소양로의 가장 가난한 골목에서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찻집을 인수해 카페로 개조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커피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지금의 욱림고개로 카페를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욱림고개가 유명하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9평 한칸으로 시작한 카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카페와 커피공장을 운영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은인과 같은 고객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 조선커피의 사명社名

조선커피는 영어로 Chosen Coffee입니다.

예전에는 조선을 표기할 때 Chosen 이라고 썼습니다.

곧 선택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님은 본국에 선교보고를 할 때 자신이 조선(Chosen),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커피는 Chosen Coffee, 선택된 커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커피를 하겠습니다.

3. 조선커피의 꿈

조선커피의 표어는 '영혼을 깨우는 커피'입니다.

조선커피를 드시는 분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커피를 로스팅하고 만들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자 합니다.

조선커피의 사업이 이웃들에게 참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이길 소망합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이란 주제로 6.25전쟁의 참혹함과 성도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특 집

6.25전쟁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1. 6.25전쟁 속의 전국 교회와 성도들
2. 6.25전쟁과 접경도 강원도 교회와 성도들
3. 6.25전쟁 초기 춘천대첩과 춘천지역 교회와 성도들

3년 1개월간 진행된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감행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이다. 3년 1개월간의 전투로 수많은 인적·물적피해를 입었다.

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민간인 피해(<표 1> 참조)는 약 25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119,968명이며, 이 중에서 사망은 244,663명이고 학살이 128,936명이다. 북한의 민간인 피해도 150만 명이나 된다. 또한 피난민이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도 30만여 명, 전쟁고아도 10만여 명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1> 남북한 민간인 피해현황

(단위 : 명)

계	남한						북한
	소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2,490,968	990,968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1,500,000
#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							

교회 및 기독교관련 건물의 피해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교회 건물이 폭격으로 파괴되거나 화재로 소실되었고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커르와 앤더슨(Edith A Kerr and George Anderson)의 보고에 의하면 전쟁이 시작된 후 6개월 간의 피해는 1,373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666개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기독교 기관과 미션스쿨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다. 서울



서울 근교 파괴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1950.10.29.)

소재의 성서공회와 기독교서회가 불타서 그동안 보존되어 오던 귀중한 자료가 소실되었고 또한 YMCA가 불탔고 세브란스 병원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서울은 전체의 80%가 폐허가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교회피해 상황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6.25전쟁으로 인한 교회의 파괴상황 (단위 : 개소)

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합계
완전소실	152	84	27	4	267
파괴	467	155	79	4	705
합계	619	239	106	8	972

성도들의 피해

성도들의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순교를 당한 손양원 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서울에서는 신당동중앙교회 안길선·김예진 목사가 순교했고 서대문 감옥에서 주채원 목사 등이 순교했으며, 김응락 장로는 영락교회 앞에서 순교했다. 황해도 봉산의 계동교회 180여 명의 성도 중 175명이 예배당 안에서 갇힌 채 태워죽임을 당했고 대전형무소에서는 남한의 수많은 교역자와 평신도가 투옥되어 있었는데 공산당이 후퇴직전에 감옥에 불을 질러 모두 살해되었다.

이렇게 6.25전쟁 중에 순교하거나 납치당한 교역자만 보더라도 장로교 177명, 감리교 지도자 44명, 성결교 지도자 11명, 구세군 6명 등 모두 240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외에도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이 북한군에게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으니, 그 참상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국가의 안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목숨 걸고 국가 안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 속 깊이 뼈저리게 교훈으로 새겼으면 좋겠다.



중앙청 앞 폐허 속에서 무언과 뒤지는 사람들



6.25전쟁으로 파괴된 구 철원제일교회 모습

지구촌이 코로나19 사태로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3월 14일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 62%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연대에 의하면 신천지는 폭행, 테러, 방화, 여론 조작, 가정파탄, 이혼, 가출, 학업과 직장 포기, 부모 폭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단 사이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 신천지의 교주 이만의 씨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한다.

신천지는 전 세계 신도 추정치 약 30만명, 한국에 약 24만명 정도이다. 신천지의 섭외 등급 기준표에 의하면 A, B, C급으로 나누는데 교회 교인들이 주 타겟으로 실제 신천지 신도의 상당수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신천지 신도 중에 청년들이 신도들 중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대학생이 2-3만 명인데 A 대학은 신천지가 1,200명, B 대학은 1,300명 정도이다. 20명 중에 한 명은 신천지라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천지 신도 중 절반 이상이(55%) 20대라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탈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천지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20여 명이 작전(모략)에 동원되고, 다양한 방법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연기한다는 걸 전제한다면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나하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언제나 내 주변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어떤 사이버 집단인지 폭로가 되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천지 이탈자들이 기존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지만 혹시나 모를 신천지 탈퇴자에 대해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과 연대하여 그들이 겪을 많은 후유증을 어떻게 받아 주고, 치유할 것인지, 이단 상담연구소를 통한 상담,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하고 격려하며, 가정, 교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구촌이 코로나19 사태로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3월 14일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 62%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천지 피해자 가족 연대에 의하면 신천지는 폭행, 테러, 방화, 여론 조작, 가정파탄, 이혼, 가출, 학업과 직장 포기, 부모 폭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단 사이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한다.

신천지는 전 세계 신도 추정치 약 30만명, 한국에 약 24만명 정도이다. 신천지의 섭외 등급 기준표에 의하면 A, B, C급으로 나누는데 교회 교인들이 주 타겟으로 실제 신천지 신도의 상당수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신천지 신도 중에 청년들이 신도들 중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전체 대학생이 2-3만 명인데 A 대학은 신천지가 1,200명, B 대학은 1,300명 정도이다. 20명 중에 한 명은 신천지라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천지 신도 중 절반 이상이(55%) 20대라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탈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천지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20여 명이 작전(모략)에 동원되고, 다양한 방법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연기한다는 걸 전제한다면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나하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자신의 일이 아닌 듯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언제나 내 주변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어떤 사이버 집단인지 폭로가 되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천지 이탈자들이 기존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지만 혹시나 모를 신천지 탈퇴자에 대해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과 연대하여 그들이 겪을 많은 후유증을 어떻게 받아 주고, 치유할 것인지, 이단 상담연구소를 통한 상담,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하고 격려하며, 가정, 교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신현천 목사 (새누리 장로교회)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토이 드라이브스루로 놀잇감 반납 · 대여도 가능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홍금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4월 14일부터는 놀잇감 재대여를 드라이브스루 예약제로 연회원 소지자에 한해 재 개관일까지 '1가정 1점'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로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가정 내 육아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놀잇감을 철저히 소독한 뒤 꼼꼼히 포장하여 준비하오니 안심하고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YMCA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초대교회 성전이전 |

초대교회(남춘로5번길 27-8)가 2020년 사순절 다섯번째(3.29) 주일에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퇴계동 철도 옆에서 하나님과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기도한다.



대한기독교성결교회 강원서지방회 목회자 코로나 방역 봉사 |

3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4주 간 매주 금요일 마다 방역 봉사를 하였다.

방역 봉사는 강원서지방회 소속 10여명의 목사님들이 춘천 관할 강원서지방회 12개 교회 및 신청하는 교회를 순방하며 방역하였다.



찾아가는 봉사당회 |

춘천동부교회(담임:김한호 목사) 당회원은 매년 '찾아가는 당회'를 진행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김치 김장, 배달과 홈클리닝 봉사, 차량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배달봉사, 그리고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청소 및 배식, 설거지 봉사 등, 지역사회에 섬김의 자리를 직접 찾아가 봉사하고 있다.

4월 4일(토) 김한호 담임목사 이하 약 23명의 인원이 참석한 금번 봉사당회는 교회가 속한 명동 지역 일대를 다니며 소독 및 방역 봉사로 진행되었다. 명동 및 브라운 상가와 금강로, 중앙로를 상가를 일일이 다니며 출입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신호등, 운동시설과 의자 등의 공공시설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성명서 발표 |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 연합회, 춘천장로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 및 교단장 회의 |

3월 26일(금) 오전 7:00 순복음조은교회에서 기독교연합회 임원 및 각 교단장들, 연합회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 및 교단장 시장면담 |

3월 31일(화) 오후3:00 이재수 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춘천기독교계의 입장과 춘천시와 협력하여 문제를 대처할 것을 나누었다.



제2차 비전교회 후원 조찬기도회(약식) |

4월 7일(화) 오전7시30분 거두리감리교회(남궁만 목사)에서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 연중사업인 제2차 비전교회 후원 조찬기도회를 하였다.



기관 소개 강원대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예수전도단 | 010-9480-0866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주님을 더 알고싶고 만나고 싶은 너를 위한 완벽한 Plan! 매주 묵상, 중보기도, 예배는 물론 매년 열방을 향한 전도여행까지! 놓치지 말라구~

DFC | 010-8717-6970

DFC는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믿음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IVF | 한울관 104 | 010-2529-8133

IVF는 Inter-Varsity Fellowship의 약자로, 한국기독교학생회입니다.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읽고, 연구합니다. 서로의 삶을 묻고 듣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합니다.

JDM | 백록관 309 | 010-5162-9400

"만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7년부터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모인 가족인 동시에 훈련의 공동체, 예수제자운동입니다.

CCC | 백록관 310 | 010-2239-8513

CCC는 Campus Crusade for Christ 의 약자로 1958년부터 시작된 선교단체 입니다. 1:1 멘토멘티제, 강대캠퍼스모임, 연합 채플, 전국 여름수련회, 해외선교, 말씀기도훈련 등 다양한 교류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SP | 010-6437-5171

ESP(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 초교파 학생 선교운동 단체입니다.

UBF | 한울관 102 | 010-4279-3847

"성경을 사랑하고 전하고 지키자" 누구나 일대일로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도록 돕고 이 시대를 섬길 리더들을 키우는 모임. 2019년에는 '한국기독교 교육브랜드대상'(국민일보)수상



예수전도단



IVF



IVF 홍보영상



ESP 기독교대한민교회

ESP



CCC 캠퍼스 사역

CCC



1월 CCC 인도네시아



1월 CCC 한국지영애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연합회

- 6.25 70주년 구국기도회
 일시: 6월 25일(목) 오전11:00
 장소: 칠원 노동당사 앞

+장로연합회

- 6.25 70주년 구국기도회(예정)
 일시: 6월 24일(수) 오전7:30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올리클럽

창립 24주년 기념(6월 8일)

+춘천성시화운동

- 성사선교대회 (예정)
 일자: 6월 7일(주일)~13일(토)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 이사회 정기 기도회

일시: 5월 12일(화) 오전7: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 임원 정기 기도회

일시: 6월 16일(화) 오전7:30

+예수전도단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일시: 4월 24일(금)~5월 23일(토)
 문의 및 책자판매: 춘천지부(033-252-1128)

*www.30prayer.org에 기도 제목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남/여 신학생·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2년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례를 받은 자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연구원	(주)2년 4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 특전 - 방학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음.

■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수료 후 본교단에서 목사고시 후 안수 받을 수 있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원신학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32-1 (근화동 710-17)

수시모집

033)243-5354

주영 CAR 용품점

자동차의 모든 것

주영자동차용품에서 해결하세요!

360°어라운드뷰시스템, 네비, 블랙박스,
 선팅, 어린이안전장치, 자동문, 언더코팅



033-253-9106

춘천시 보안길 140 (동광오거리)

KYOCERA
 한국교세라비바

교회 사무기기 전문업체

컬러복사기 판매 및 임대 전문

디지털칼라복합기,
 인쇄기, 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각종 전산소모품



미래 아이엔티 033-253-3211

대표 권오선(권사) 010-5367-3210

전염병 중에는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셔야 멈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염병으로 표출하셨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는 원인은 대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여 죄를 지었을 때이며 둘째는, 백성들 모두가 타락하여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삼하24:13)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가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삼하24:15)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명이라

(렘14:10-12)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2. 전염병은 예수님 재림 전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눅21: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3. 현재 도는 우한 폐렴 코로나19 전염병의 해결방법은요.

*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대하6:28-30)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

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회개기도 함.

(대상21:16-17)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굶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4. 전염병이 주는 교훈은?

1) 악해져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2)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걸(몸)을 깨끗하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속(죄와 탐욕)까지 깨끗하게 하면, 코로나19 전염병을 멈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왔을 때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나의 타락과 범죄로 인한 것이 있어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듯이, 이 지구촌에 맹렬하게 돌고 있는 전염병들(코로나 19포함)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한 것이 있기에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다니엘이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듯이 회개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 91:3)

- 인터넷에서 일부분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종익 목사(춘천광명장로교회)



로마서 8:37 (감독 : 신연식, 2017)



이것은 성경구절 강해 제목이 아니다. 당당히 영화제목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이 유명한 구절을 과감히 제목으로 내세운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감독이 만든 작품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커다란 금자탑을 이룬 한 해였으니 바로 아카데미 영화제에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하여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영화의 저력은 세계인의 심금을 파고들 만큼 깊이와 힘을 다져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수상자 봉준호 감독 같은 우수한 감독들이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 그 저력을 유감없이 펼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감독들 중 이 영화를 만든 신연식 감독도 주목받을 만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신천지의 가증스러운 이단 집단의 실태가 드러나고, N번방, 박사방이라는 성착취의 가공할 추악함으로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간 상당히 위험한 올해의 봄...우리는 주일성수의 거룩한 일상을 일시 상실하고 인터넷, 동영상 예배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겪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지 돌이켜 자성(自省)하지 않은 결과라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다 우리는 더욱 우리 심령의 옷을 찢고 자복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깊은 병폐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이미 4년 전에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때 감독의 눈에 비친 예후들이 올해 들어와 그 질환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증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독의 말마따나 '뜨거운 자기부정'인 것이다.

주인공인 전도사 기섭이 자신의 형 요섭 목사를 우상처럼 믿고 따름으로 부순교회의 간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둘러싼 진영 다툼과 요섭 목사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어 깊은 충격과 고뇌 속에 간절한 통회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담은 이 영화는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묵직한 메시지, 가슴 아픈 공감"이라는 폭발적인 호평과 찬사를 받고 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 각본을 맡아 제36회 영화평론가협회상 각본상을 수상한 신감

독의 일곱 번째 장편인 이 영화는 각각의 죄를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면서 또한 절대 깨지지 않는 견고한 세계 속에서 흔들리고 고통 받는 개인, 그리고 모든 사건이 진영논리로 귀결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 같은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모두가 응시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로마서 8:37>은 영화제 관람객들의 추천 열기 속에 한국의 '종교 영화' 클래식 탄생을 알렸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기섭의 회개기도는 종교 유무를 떠나 목직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다. 감독의 다음 말을 소개하며 이 영화를 감사함으로 기도와 함께 관람하길 바란다, "우리의 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포장하는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욕망으로 다양한 갈등 속에 휩싸이는 것을 다루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함의 순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기섭이 시작하는 철저한 자기부정의 고백의 순간에 이 영화를 관람하는 모든 관객들이 동참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춘배(화가, 시인, 문학평론가)



♥ 후원 참여 ♥

신협 131-005-937566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TEL 033)256-1260 FAX 257-1260
HP 010-9698-2993

자스민은 각종 모임, 회식, 상견례 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최고의 맛으로
여러분의 외식문화를 한 차원 높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스민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매 주일은 휴무입니다
월~토 : 11:00-22:00
Break Time : 15:00-17:00(평일)

Tel : 033-241-5453
춘천시 우묵길74번길 14



강원CBS 미자립교회 돕기 캠페인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강원CBS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너져가는 강원도 지역내 70%에 달하는 수많은 작은교회, 미자립교회들의 제단을 함께 세우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CBS는 예배중단으로 인해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가교회들, 기초생활비와 선교비가 고갈되어버린 작은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가 동참하는 캠페인을 무기한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의 체납된 임대료 지원,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긴급선교비 지원이 아직 미치지 못해 절박하게 필요한 많은 교회들이 있기에 강원CBS는 춘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별 기독교연합회, 강원CBS운영이사회가 함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캠페인스팟을 제작해 라디오, TV,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CBS뉴스보도와 특집방송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후원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미자립교회 돕기 특별모금방송, 찬양콘서트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바자회 등 강원CBS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원도 선교를 위해 함께 달려온 지역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선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숲에는 큰 나무만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셋강이 살아야 큰강이 살아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발길조차 끊겨있는 강원도 구석구석에서 소중한 선교사역을 감당해 온 수많은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역은 강원도의 모든 교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 4분 성시

강원CBS 춘천성시화운동방송
방송일시 : 매주 화요일 밤9:30